

# 노년기의 고독감 :

## II. 자녀와의 관계에서 파생된 고독감의 척도 개발\*

윤가현 · 송대현

전남대 심리학과

본 연구는 Likert 식 척도를 응용하여 한국노인들이 느끼는 고독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고독의 정의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고독에만 한정시켰다. 그 척도는 t-검증과 문항-총점 상관법에 의거하여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척도의 분석에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추출된 3개의 주요한 요인은 전체변량의 57.7%를 설명해 주었다.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고독감을 경험한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기에 달하면 젊었을 당시와 비교하여 본질적으로 다른 원인에 의하여 고독감을 경험한다 (Weiss, 1982). 이와 같은 고독의 현상은 매우 복잡한 것이지만, 노년기에 이르러 고독을 느끼게 만드는 요인들은 주로 활동의 제약, 경제적인 여유 부족, 건강의 약화, 배우자의 상실, 교우관계의 불만이나 부족,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불만족 등이다 (송대현과 윤가현, 1989).

오늘날의 한국 노인들은 시대적으로 평균 수명의 연장과 핵가족화현상 등의 변화를 겪으면서 예전의 노인들과는 다른 의식의 차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노년기에 달하면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고독감이 다른 어떠한 원인에 의한 고독감보다 더 보편적인 것이었는데, 특히 경제적인 도움을 자녀들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요인에서 고독감을 심하게 경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송대현과 윤가현, 1989). 그와 같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는다는 사실은 아마도 노년기에 달한 개인이 전반적으로 후손들과의 따뜻한 내면적인 교류를 갖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인생의 후반기에 도달한 개인들을 시대적인 사회환경의 변화에 보다 잘 적응시키기 위하여 먼저 그들이 경험하는 고독의 심리학적인 특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노인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파생된 고독감을 평가하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 방 법

#### 제1단계

자녀와의 관계로부터 파생되는 고독감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30개의 진술문장들을 만들었다. 진술문장들은 노년기의 고독감의 연구 I

\* 이 연구는 1989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송대현과 윤가현, 1989)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들과의 면접에서 얻은 내용 및 문헌조사를 토대로 하여 작성되었다. 그 진술문장들의 절반은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고독감을 경험하지 않는 측면의 긍정적인 내용으로,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고독감을 경험하는 측면의 부정적인 내용으로 서술되었다. 연구자들을 포함한 4명의 전문가들이 그 진술문장들을 척도용 문항선별의 기준에 따라서 선별하였다(Edwards, 1957). 전문가들의 문항평가기준에 의해서 17개의 문항들이 척도개발을 위하여 선별되었다. 선별된 문항들 가운데 긍정적인 차원의 문항수는 9개였고 부정적인 차원의 문항수는 8개였다. 가산척도들(summated scales)은 일반적으로 매우 신뢰로운 것으로 평가되므로(Nunnally, 1978), 자녀와의 관계에서 파생된 고독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Likert 식 가산평정척도(Likert method of summated ratings scale)가 선택되었다.

문항의 형태(item format)는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5개의 반응선택의 폭이 주어졌다. 긍정적인 차원의 문항들의 응답에서는 “매우 그렇다”의 반응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의 반응에는 5점으로 1점 단위로 점수화되었다(〈표 1〉을 참조). 부정적인 차원의 문항들의 점수화는 긍정적인 차원의 것들과 반대로 시행되었다. 모든 조사대상자마다 개개의 문항의 점수들을 가산하여 검사에 대한 총점을 구했다. 여기에서 총점의 점수범위는 17점에서 85점이며, 총점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관계에서 고독감을 심하게 경험함을 의미한다.

## 제2단계

만 60세 이상의 625명의 남녀 노인들을 대상으로 17개 문항이 수록된 설문지조사(표 1)가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은 모두 결혼하여 자녀를 생산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며 또한 최소한 한 자녀를 출가시킨 사실이 있는 자들이었다.

〈표 1〉 고독감 척도 개발에 사용된 문항과 그 통계치

1. 주변에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이 많다.	(15.453)(.525-.620)
2. 집안에서 할 일이 많다.	(6.903)(.291-.387)
* 3. 자녀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느낌이 든다.	(19.382)(.490-.725)
* 4. 며느리 또는 아들이 원망스럽다.	(16.455)(.615-.664)
5. 자녀들이 내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다.	(18.390)(.634-.710)
6.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	(13.953)(.464-.633)
* 7. 자녀들과 의견대립이 있다.	(11.926)(.412-.518)
* 8. 오래사는 것이 죄처럼 느껴진다.	(16.666)(.513-.692)
* 9. 가사에 대한 나의 의견은 무시된다.	(16.123)(.546-.706)
10. 몸이 아프면 자녀들에게 이야기한다.	(7.053)(.275-.383)
11. 자녀들과 자주 대화하는 편이다.	(16.899)(.567-.711)
12. 자녀들이 나를 이해해준다.	(20.216)(.692-.750)
13. 나이가 들어서도 나는 집안에서 가치있는 존재다.	(21.664)(.660-.733)
14. 혼자서 집을 지킬 때가 많다.	(7.869)(.259-.394)
* 15. 자녀들이 나와 이야기하는 것을 꺼린다.	(18.066)(.649-.721)
* 16.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다.	(10.781)(.325-.652)
17. 자녀들이 내 생일을 기억해준다.	(11.264)(.455-.534)

(문항에 대한 반응형태는 5점 척도(매우 그렇다=1, 그렇다=2, 보통이다=3, 그렇지 않다=4, 전혀 그렇지 않다=5)로 구성되었으며, 별표(\*)가 붙은 문항들의 점수화는 반대로 시행되었다. 문항 뒷편의 첫번째 괄호 속의 통계치는 총점들 기준으로 하위점수 25%에 해당하는 집단과 상위점수 25%에 해당하는 집단의 각 문항의 1점증의 값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번째 괄호 속의 통계치는 전체집단, 남성집단, 여성집단, 출가한 자녀와 동거하는 집단, 그리고 출가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집단에서 각 나타난 각 문항과 총점간의 상관 관계의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최종적인 문항선별에서 문항 2, 문항 10, 문항 14, 그리고 문항 17이 제외되었다.)

표집의 대상은 모두 광주직할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남성 316명과 여성 309명이었다. 그렇지만 16명의 남성과 9명의 여성은 조사에 대한 반응이 아주 확신했거나 거의 무응답 상태였으므로 결과처리에서 그들의 자료는 제외되었다. 결국 최종적인 조사대상자는 600명(남녀 각각 300명씩)이었으며, 그들의 평균나이는 남성이 69.88세 (SD = 6.63), 여성이 70.22세 (SD = 6.99)였다. 또한 표집대상의 출가한 자녀와의 동거여부 및 조사대상자의 배우자생존 여부에 따른 나이 분포는 표 2 및 표 3 과 같다. 결혼당시의 배우자와 사별하여 재혼한 경우나 이혼하여 재혼한 경우는 표집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배우자와 사별한 개인들은 평균 17.25년(N = 299, SD = 12.21) 정도 홀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남성들은 평균 8.81년(N = 70, SD = 8.20) 그리고 여성들은 평균 19.83년(N = 229, SD = 12.08)이었다.

<표 2> 출가자녀 동거여부 관계 및 성별과 나이분포

기혼자녀와동거여부		성별		계
		남	여	
yes 반응	N	130	151	281
	나이(평균)	71.42	71.42	71.42
	나이(SD)	6.73	6.82	6.77
no 반응	N	169	149	318
	나이(평균)	68.67	69.01	68.83
	나이(SD)	6.34	6.96	6.63

<표 3> 배우자 생존의 여부관계 및 성별과 나이분포

배우자생존여부		성별		계
		남	여	
생존	N	230	71	301
	나이(평균)	68.92	65.72	68.17
	나이(SD)	6.20	5.24	6.13
사별	N	70	229	299
	나이(평균)	72.01	71.62	71.04
	나이(SD)	7.09	6.88	6.94

### 제3단계

최종적인 문항선택은 두 가지 기준에 의했다. 그

하나는 t-검증이었는데, 여기에서는 검사에 대한 총점(N = 600에 대한 평균은 43.89, SD는 9.72였음)을 기준으로 상위점수 25%(총점의 분포는 50-75; N = 151)에 해당하는 집단과 하위점수 25%(총점의 분포는 22-37; N = 155)에 해당하는 집단과의 각문항간의 검증이었다(Edwards, 1957). 이 기준에 의하여 모든 문항이 두 집단간의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지만(표 1의 통계치를 참조), 문항 2, 문항 10, 그리고 문항 14는 t 값이 다른 문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으므로, 또한 문항 17은 두 집단 모두 긍정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즉, 하위집단의 평균은 1.17이고 상위집단의 평균은 2.11이었음) 최종적인 문항선택기준에 부적격하다고 판정했다.

문항선별기준의 다른 하나는 각 문항과의 총점간의 상관관계(item-total correlation)를 구하는 것이었는데, 전체집단을 비롯하여 남성집단, 여성집단, 출가한 자녀와 동거하는 집단, 그리고 비동거집단에서 상관관계가 모두 .300이상인 문항을 선택하였다(표 1 두 번째 괄호 안의 통계치를 참조). 이러한 과정에서도 역시 문항 2, 문항 10, 그리고 문항 14가 문항 선택에서 부적격하다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상기의 두 가지 선정기준에 의하여 원래의 17개의 문항 가운데 13개의 문항이 척도구성용 문항으로 선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13개의 문항중에서 고독감에 대한 긍정적인 차원의 문항은 6개 그리고 부정적인 차원의 문항은 7개이다.

## 결 과

### 신뢰도

고독감 척도구성에 부합된 13개 문항들은 검사의 성격상 반복하여 시행하지 않고 반분신뢰도(split-half reliability)를 추정하여 내적 일치성(internal consistency)을 평가했다(Ghiselli, Campbell & Zedeck, 1981). 고독감척도는 기수(odd number)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므로 6개의 문항과 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평행검사들로 나누어 반분된 검사

의 총점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여 Spearman-Brown 공식에 의하여 내적일치성을 평가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긍정적인 차원의 문항의 수와 부정적인 차원의 수를 반반씩 선택한 여러 가지 조합으로 반분된 검사를 만들었다. 이러한 조합에서 나타난 반분된 검사들의 총점간의 상관계수는 최저 .729(즉, 문항 1, 9, 11, 12, 16으로 이루어진 반분된 검사와 문항 3, 4, 5, 6, 7, 8, 13으로 구성된 반분된 검사의 총점간의 통계치)로부터 최고 .808(즉, 문항 1, 6, 7, 9, 11, 15로 구성된 반분된 검사와 문항 3, 4, 5, 8, 12, 13, 16으로 구성된 검사의 총점간의 통계치)에 이르렀으며, 결과적으로 Spearman-Brown 공식에 의한 반분신뢰도의 추정치는 .843으로부터 .894이었다.

### 요인분석

조사대상자 600명의 반응은 varimax 회전에 의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하였다. Cattell (1978)의 scree 검사를 응용하니(즉, 고유가(eigenvalue)가 1 이상, 고독감척도는 3개의 의미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것들은 의사소통의 요인(요인 1), 자기존중의 요인(요인 2), 그리고 친자갈등의 요인(요인 3)이다. 이들은 전체변량의 57.66%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회전된 요인의 형태는 표 4와 같다.

<표 4> 배우자 생존의 여부관계 및 성별과 나이분포

문항 요인	1	2	3
11	.790		
12	.736		.336
1	.671		
5	.598		.354
15	.582		.350
6		.776	
8		.744	
13	.472	.661	
3		.672	
9	.403	.539	
7			.736
16			.700
4	.412		.588

(각 요인에 의해 설명된 변량은 요인1이 23.176%, 요인2가 20.074%, 그리고 요인3이 14.306%로, 상기의 세 요인이 전체변량의 57.656%를 설명해주고 있다. 상기의 표에서 요인부하량이 .300보다 작은 것은 편의상 제시하지 않았다.)

표 4에서 나타난 세 가지 요인에 대한 성별, 기혼자녀와의 동거여부, 종교의 관심도 등에 의해서 구한 통계치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의 점수범위는 총점이 13에서 65점, 요인 1이 5에서 25점, 요인 2가 5에서 25점, 그리고 요인 3이 3에서 15점이다.

<표 5>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각요인의 평균점수(표준편차)

분류*/요인	N	총 점	요인 1	요인 2	요인 3
전체	600	33.62(8.35)	13.49(3.67)	12.40(3.90)	7.73(2.37)
A1	300	32.53(8.07)	13.24(3.62)	11.75(3.79)	7.55(2.26)
A2	300	34.70(8.49)	13.74(3.70)	13.05(3.91)	7.91(2.48)
B1	301	30.84(7.07)	12.56(3.29)	10.94(3.30)	7.33(2.22)
B2	299	36.42(8.61)	14.43(3.79)	13.87(3.91)	8.12(2.46)
C1	281	35.17(8.99)	13.89(3.82)	13.47(4.15)	7.81(2.33)
C2	318	32.33(7.49)	13.14(3.50)	11.45(3.40)	7.65(2.42)
A1, B1	230	31.10(7.20)	12.75(3.36)	10.91(3.29)	7.44(2.21)
A1, B2	70	37.23(9.01)	14.84(3.99)	14.50(4.03)	7.89(2.39)
A2, B1	71	29.97(6.60)	11.96(3.00)	11.04(3.35)	6.97(2.21)
A2, B2	229	36.17(8.49)	14.30(3.73)	13.67(3.86)	8.20(2.49)
A1, C1	130	34.05(9.15)	13.63(3.87)	12.91(4.27)	7.51(2.28)

분류*요인	N	총점	요인 1	요인 2	요인 3
A1, C2	169	31.34(6.94)	12.93(3.40)	10.85(3.11)	7.56(2.25)
A2, C1	151	36.14(8.77)	14.11(3.76)	13.96(4.00)	8.07(2.34)
A2, C2	149	33.25(7.98)	13.38(3.61)	12.13(3.60)	7.74(2.60)
A1, B1, C1	74	31.55(8.27)	12.91(3.58)	11.47(3.84)	7.18(2.30)
A1, B1, C2	156	30.89(6.65)	12.67(3.26)	10.65(2.97)	7.57(2.17)
A1, B2, C1	56	37.34(9.30)	14.59(4.07)	14.80(4.09)	7.95(2.21)
A1, B2, C2	13	36.69(8.37)	16.00(3.72)	13.23(3.83)	7.46(3.13)
A2, B1, C1	20	29.05(6.21)	11.60(3.15)	10.50(3.04)	6.95(2.40)
A2, B1, C2	51	30.33(6.77)	12.10(2.96)	11.26(3.48)	6.98(2.16)
A2, B2, C1	131	37.22(8.61)	14.49(3.71)	14.49(3.87)	8.24(2.29)
A2, B2, C2	98	34.77(8.16)	14.04(3.75)	12.59(3.59)	8.13(2.73)
종교관심무	418	34.22(8.27)	13.92(3.56)	12.51(3.90)	7.79(2.37)
기독교	75	31.72(8.12)	12.43(3.68)	11.97(3.89)	7.32(2.30)
카톨릭교	26	33.04(7.46)	12.77(2.85)	12.27(3.61)	8.00(2.04)
불교	68	32.99(9.16)	12.74(3.95)	12.47(4.10)	7.78(2.57)

(\* 분류에서 A는 성별로 곧 A1은 남성, A2는 여성을 나타낸다. B는 배우자와의 결혼관계를 나타내는데, B1은 결혼당시의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개인을, B2는 배우자와 사별하여 혼자서 살고 있는 개인을 나타낸다. 그리고 C는 기혼자녀와의 동거여부를 나타내는데, C1은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이며 C2는 다른 자녀와 동거할지라도 기혼자녀와는 동거하지 않을 경우를 나타낸다. C의 응답에서는 599명을 그리고 다른 경우네는 600명을 기준으로 하여 얻은 통계치이다.)

표 5에서 본 것처럼 성별, 결혼당시의 배우자와의 동거여부, 그리고 기혼자녀와의 동거여부 등에 따라서 다른 통계치들이 제시되었다. 그와 같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있는지를 알기 위해 599명의 반응을 총점, 요인 1 점수, 요인 2 점수, 그리고 요인 3 점수별로 변량분석하였다(표 6부터 표 9까지임).

표 6부터 표 9까지는 성별(A), 결혼당시의 배우자와의 동거관계(B), 그리고 기혼자녀와의 동

거여부(C)에 대한 차이를 분석했다. 표 6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별의 차이 및 기혼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대한 차이는 유의없었으나 배우자의 생존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있었다 [ $F(1, 591) = 46.799, p < .001$ ]. 즉, 배우자와 사별하여 혼자서 살고 있는 개인이 결혼당시의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개인보다 훨씬 고독감척도에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총점의 비교에서는 상호작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총점의 변량 분석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비
A	129.003	1	129.003	2.086
B	2894.637	1	2894.637	46.799***
C	30.492	1	30.492	—
A × B	5.115	1	5.115	—
A × C	0.093	1	0.093	—
B × C	68.580	1	68.580	1.109
A × B × C	69.767	1	69.767	1.128
오 차	36555.220	591	61.853	
전 체	39752.907	598		

\*\*\* p. < .001

표 7에서는 요인 1이 성별과 배우자의 생존여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고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 (1,591) = 6.106,  $p < .05$ ], 배우자와 사별한 개인이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개인보다 훨씬 고독한 것으로 나타났다 [F (1,591) = 38.095,  $p < .001$ ]. 그러나 그밖의 차이에서는 별다른 의의가 없었다.

표 8에서는 요인 2가 배우자 생존여부 및 기혼

자녀와의 동거여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또한 그 상호작용도 유의있었다. 즉,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F (1,591) = 49.123,  $p < .001$ ], 그리고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고독감의 점수가 높았다 [F (1,591) = 4.873,  $p < .05$ ]. 상호작용의 경우도 [F (1,591) = 4.492,  $p < .05$ ] 그러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그밖의 차이에서는 의의가 없었다.

<표 7> 요인 1의 변량분석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비
A	76.807	1	76.807	6.106
B	479.188	1	479.188	38.095***
C	7.468	1	7.468	—
A × B	0.159	1	0.159	—
A × C	6.295	1	6.295	—
B × C	2.405	1	2.405	—
A × B × C	33.154	1	33.154	2.636
오 차	7434.098	591	12.579	
전 체	8039.574	598		

\*  $p < .05$       \*\*\*  $p < .001$

<표 8> 요인 2의 변량분석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비
A	8.612	1	8.612	—
B	624.906	1	624.906	49.123***
C	61.997	1	61.997	4.873*
A × B	1.713	1	1.713	—
A × C	7.810	1	7.810	4.492*
B × C	57.148	1	57.148	1.410
A × B × C	17.940	1	17.940	
오 차	7518.294	591	12.721	
전 체	8298.420	598		

\*  $p < .05$       \*\*\*  $p < .001$

<표 9> 요인 3의 변량분석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비
A	0.116	1	0.116	—
B	47.794	1	47.794	8.690***
C	0.145	1	0.145	—
A × B	15.757	1	15.757	2.865
A × C	0.000	1	0.000	—
B × C	5.164	1	5.164	—
A × B × C	2.692	1	2.692	—
오 차	3250.400	591	5.500	
전 체	3322.068	598		

\*\*  $p < .01$

표 9에서는 요인 3이 배우자의 생존여부에서 의의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배우자와 사별하여 혼자 살고 있는 경우가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보다 훨씬 고독한 것으로 나타났다[F(1, 591)=8.690, p<.01].

## 논 의

본 연구는 노년기에 도달한 개인들이 출가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고독감을 평가하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면접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는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고독이나 갈등이 매우 심한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척도의 반응에서는 그다지 높은 점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고독감 척도의 총점의 범위는 13에서 65점이지만 600명의 평균은 불과 33.62로 자녀와의 관계에서 대부분이 별다른 고독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반응하였다. 이와 같은 모순은 아마도 전통사회에서의 개인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방어적으로 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곧 노인이 자기의 자녀와의 관계로부터 고독감을 얻었다고 반응하는 것은 그 노인이 자녀를 그렇게 키웠다는 의미를 부여하므로 스스로를 방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森幹郎, 1983, pp.139-140).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고독감척도는 방법론상 의미있는 3개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전의 연구에서도 예증되었듯이 표 6은 전반적으로 배우자를 사별한 개인들이 현재 결혼당시의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개인들보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심한 고독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대현과 윤가현, 198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인 1은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자신이 이해되기를 바라는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요인 1의 분석은 배우자와 사별한 개인들이 그렇지 않은 개인들보다 자녀들과의 의사소통에서 고독감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노년기에 이르러 자녀관계에서 외로움을 더 많이 느

끼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요인 2는 자기의 존재가치나 존재의식을 평가하는 “자기존중”을 의미한다. 요인 2의 분석에서도 역시 배우자를 상실한 개인이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존재가치의 저하와 같은 느낌을 더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녀관계에서 얻은 불만감으로 “친자간의 갈등”을 표현하는 요인이다. 여기에서도 역시 배우자를 상실한 개인이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더 갈등이 심함을 나타낸다.

본 척도는 반분신뢰도의 검증에 의하여 내적 일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의 측면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본 척도가 Beck(1967)의 우울척도나 Costello와 Comrey(1967)의 불안 및 우울척도와 의미있는 관계를 가지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또한 본척도는 UCLA 고독감척도(Russell, Peplau, & Cutrona, 1980)와는 달리 조사대상자가 자녀를 출가시킨 경험이 있는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만 한정시켰다. 결국 보다 의미있는 표집타당도(sampling validity)를 얻기 위해서는 표집대상을 50대까지 확대시켜 나이의 증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차이의 해석에서 시대적인 배경(즉, cohort 효과)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본 척도의 유용성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송대현·윤가현(1989). 노년기의 고독감 : I. 한국 노인이 느끼는 고독의 특성. 한국노년학, 9(in press).
- 森幹郎(1983). 老人問題とは何か. 京都:ミルルウヱ書房.
- Beck, A. T.(1967). *Depression*. New York: Hoeber.
- Cattell, R. B. (1978). *The scientific use of factor*

- analysis in behavioral and life sciences*. New York: Plenum Press.
- Costello, C. G. & Comrey, A. L. (1967). Scales for measuring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Psychology*, 66, 303-313.
- Edwards, A. L. (1957). *Techniques of attitudes scale construction*.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 Ghiselli, E. E., Campbell, J. P. & Zedeck, S. (1981). *Measurement theory for the behavioral sciences*. San Francisco: W. H. Freeman and Co.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 Hill.
- Russell, D., Peplau, L. A. & Cutrona, C.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72-480.
- Weiss, R. S. (1982). Issues in the study of loneliness. In L. A. Peplau & D. Perlman (eds.),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pp. 71-80). New York: John Wiley & Sons.

韓國心理學會誌:發達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989. Vol. 2, No. 1, 106~113

## Development of a Scale Measuring Loneliness for the Korean Elderly

Youn, GaHyun & Song, DaeHyu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oneliness is a complex phenomenon, but its definition confined to a loneliness produc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their offsprings in this paper. An attitude scale towards loneliness for the Korean elderly was developed, using the Likert scale. The scale consists of 13 items selected on the basis of t-tests and item total correlations. Analysis of the scale indicated a high reliability. The scale was comprised of the three major factors, accounting for 57.7% of the total variance. It is suggested that further research on loneliness measures should be emphasized upon validation by demonstrating relationships with the person's current feelings of loneliness, depression, anxiety and so on.